

### 지상 법석

# 일심 안되면 공덕 없어

타력은 나의 힘이 약하니까 다른 이의 힘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타력으로써 생사고뇌를 해탈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참선을 해서 생사해탈을 하면 '오매 일여(五昧一如)' 경지가 되고, 화두를 잘 들어 화두 한가지로 일관할 때 '정중일여(靜中一如)', 고요한 가운데 하늘 같이 됩니다.

참선은 앉아서 할 때는 잘 되어도, 일어서 일을 하던지 길을 가던지 하다가 잠깐 때 꿈에서 딴 꿈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꿈에서도 화두와 열불같은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정일여'가 돼도 밤에 잠 잘 때 꿈에서는 딴 꿈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꿈에서도 화두와 열불같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꿈에서도 한가지가 되려면 '몽중일여(夢中一如)'가 돼야 합니다.

또 꿈에서는 필자라도 꿈을 꾸지 않을 때는 안되는데 꿈을 안 꾸며 화두를 내버리고 자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정진해 '오매일여'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경지에서 좀 더 지나 더욱 정진하면 또 '확연대오(廓然大悟)'가 됩니다.

### 부처님 팔만사천 범문의 말씀

모두 생사해탈 법이다. 열불해서

삼매를 얻고, 잠선해서 견성하고

복도 짓고해서 생사고뇌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보통 범부로서 진여자성을 얻어 성불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기에 열불로서 성불하라고 한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장반왕이 이어 되물기를 "그러면 열불 공덕이 어떠한가"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정성으로 열불하면 극락세계에 가고 극락세계에 가면 탐·진·치 삼독심이 변해 자비심이 되고 성불합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정성으로 열불하면 극락세계에 가고 극락세계에 가면 탐·진·치 삼독심이 변해 자비심이 되고 성불합니다"고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원을 세워 실행하면 성불이 가능합니다.

아미타불의 48원(四十八願)에서 전하기를 찾게, 내 나라에 나는 이는 악

같이 급한 상황에서도 일념하게 됩니다.

문수보살에게 보면 문수보살이 물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성불하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행삼매 등, 한결같은 삼매에 들면 성불합니다"고 했습니다.

또 "일행삼매에 들러거든 조용한 곳에 한가이 있으면서 상오를 관하지 말고 부처님 명호를 불러 부처님을 향해 앉고 정진하면 지혜가 생겨 삼계에 부처님을 다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수보살이 다시 "그 많은 범문 중에 어떠한 법이 성불하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삼매 법문 즉 열불법문을 설했습니다.

열불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 지성심·신심·회향발원심 내면 극락정토 '눈앞' 삼독심 변해 자비심 되니 성불의 길 절로 열려

다. 확연대오의 경지에서는 번뇌가 모두 사라집니다. 또 그때는 돈오돈수가 돼 생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지에 가려면 특수한 상근기가 아니면 도저히 안됩니다.

육조대사나 하는 그런 분들은 벌써 전생에서 많이 수행하고, 복을 많이 지었기에 보살이 되어 범문 한번 듣고 깨치는 것이지만 보통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력성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정토삼부경'을 통해 열불을 말씀하셨는데 오직 부처님을 믿고 열불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성불해서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정반왕이 수차례 사신을 보내 법문을 받기 위해 정반왕의 일가와 7만 명의 대중이 모인 가운데 부처님이 법문하시기를 "열불해서 극락세계를 가야 성불이 빠릅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정반왕이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성불하는데 왜 하필 열불법문을 가르키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도에 다시 가지 아니한다. 둘째, 내 나라에 나는 이는 육신통을 구족한다.

셋째, 내 나라에 나기만 하면 모두 정정위에 들어 결정코 성불한다고 했습니다.

아미타불은 이렇게 원을 세웠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내 나라에 나기만 하면 결정코 성불한다고.

그 때문에 시방삼세 제불중에 아미타불이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미타불은 누구든지 아미타불을 정성으로서 믿고 열반만 부르면 아미타불 세계에 난다고 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 죽을 때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 말씀에도 있고, 역대조사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어려운 법, 죽는 사람이 고통이 심해 지옥세계를 헤매는데 아미타불 한번을 외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경망시에 염두해 두시고 열심히 열불하면 죽을 때와

유마경에서도 문수보살이 또 물는데 "보살들이 제일 생사를 두려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 유마경사가 "부처님 공덕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했습니다.

우리 대중, 초발심 보살들은 부처님 원력을 믿고 부처님에 의지해 일념하면 성불할 수 있습니다. 즉, 부처님을 오직 일념으로 믿고 원하면 삼악도의 지옥·아귀·축생을 모두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일행삼매하면 성불

열불에는 신심·원력·수행의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이면심이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면 극락세계, 지옥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극락세계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미타불을 보고 또 내 자성불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마음자리는 똑같은 것. 우리 중생은 삼독 번뇌에 쌓여 불성을 못 보다가 열불을 하는 힘으로 번뇌가 녹는 것입니다. 녹아지면 불성이 드러나는데, 그게 견성입니다. 견성이 곧 삼매고요.

열불 잘해 삼매를 얻으면 불성불멸합니다.

바로 열반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도 만년 정도 수행하면 확연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참선도 하고, 견성도 하고 정토발원하면 그것은 제일 좋은 수행입니다. 그것은 우리 보통 범부로서는 바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념으로 수행정진하면 우리 범부도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는 수행은 아집에 빠질 뿐이니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불하고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 각각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

김성규

### 병의 원인과 치료

미국과 유럽에는 전생기억이 분명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직된 전문적인 연구단체가 많이 있다. 그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버지니아대학의 스티븐스 박사가 있는데, 그는 1975년까지 1,300명에 달하는 전생기억자들을 조사 수집하여 전생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생기억은 태어나 아무런 습도 익히지 않은 상태인 어린 시절에 잘 나타난다. 상카는 1951년 7월 캐나다 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났을 때 목에 흉터가 길게 나 있었는데 마치 칼에 입은 상처 같아 보였다. 상카는 세살때를 자기는 전생에 이발사 프라셔드의 아들이었는데 살해되었다고 말하면서 목에 있는 상처가 그때 난 것이라고 했다. 1955년 상카 전생의 아버지 프라셔드가 소문을 듣고 상카가 살고있는



### 전생의 잘못된 행위서 만병이 발생

구르타 가를 찾아왔다. 상카는 프라셔드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아버지, 난 치캄테이의 학교에서 책을 잘 읽었지. 내 나무집지는 잔장 속에 들어있고..."

프라셔드는 지금도 죽은 아들 문자가 가지고 놀던 나무집시가 찬장 속에 들어 있음을 상기하였다. 문자가 살해된 것은 1951년 1월 19일 상카가 태어나기 6개월 전의 일이었다.

이와같이 전생이 있다면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의 원인이 되고 보면 전생에 자신이 잘못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 생애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삼세인과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생긴 병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안다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참회함으로써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1. 머리에 생기는 병은 병을 추구하는 수행자를 비방하였거나 가정에서 어른(부모, 남편, 아내)을 공격하지 않았거나 직장에서 상사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머리에 고통을 받으며 몇 생을 내려오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 목에 생기는 병은 자기의 상대방에 대해 하고싶은 대로 하면(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거나 하는 등)목에 고통이 오고 매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며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3. 가슴(폐)에 생기는 병은 생애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내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쌓이면 가슴에 고통이 오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4. 위장이나 대장에 생기는 병은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여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생각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 마음이 항상 불편하거나, 자신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일을 잊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위장에 고통이 오게 되며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5. 자궁에 생기는 병은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싫어하는 마음이 쌓이면 자궁에 병이 생기게 되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6. 심장에 생기는 병은 부모 형제, 남편, 아내를 추위나 못마

### 참회하고 집착버리면 건강한 삶 영위

평하고 불평하여 항상 원망하며 짜증내고 싫어하는 마음이 오래가면 심장병이 생기게 된다.

7. 간에 생기는 병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항상 부족한 것 같으며 돈이 아까워 꼭 써야 할 때도 쓰지 못하게 되고, 쓸이면 간에 병이 생기게 되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8. 신장에 생기는 병은 콩이나 갈 거러듯이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그러다보면 신장에 병이 생기게 되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9. 환부에 생기는 병은 그런들 알면서도 이 길러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면 치질과 같은 병이 생기게 되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0. 피부에 생기는 병은 상대방의 고통을 예사로 생각하며 상대방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잘 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쌓이면 피부에 병이 생기게 되고 몇 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외에도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눈병이 생기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면 장님의 과보를 받는다. 형제간에 동거서 원수가 되면 다음 생애 병어리의 과보를 받게 되며, 부모의 마음을 심하게 거슬러면 소아마비를 앓는 과보를 받게 된다.

이 문에 생기는 모든 병도 결국은 자신이 현생이나 전생에 행한 행위에 대한 결과인 것이다. 모든 것을 결려하게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참회하여 집착에서 벗어나면 있던 병도 나을 것이며 앞으로 생길 병도 뿌리채 말라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대중불교는 출세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비문정통 더욱 바르게 되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홍신구 후문동 358-17 (재)대중불교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골은소리  
불가의 정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정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부르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날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일과 문화, 레저지를 찾아서...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브로모·프린스·에스페로  
씨에로·르망·티코·다마스·라보

·리스 할부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 전 화: 718-0973~4 • 호출기: (015)305-3933 • 담당자: 이 계 천